

소통의 딜레마 그리고 글쓰기의 어려움

이정석 *

- I. '인문학의 위기'와 소통의 문제
- II. 외재적 소통의 위험성
- III. 글쓰기를 둘러싼 요철(凹凸)들
- IV. 내재적 소통을 도모하는 글쓰기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찌르는 그런 종류의 책들만을 읽어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머리를 치는 일격으로 우리를 깨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책을 뒀 때문에 읽지?... 그 대신 우리는 우리에게 재앙과도 같은 영향을 주는,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죽음처럼, 모든 이들로부터 멀리 숲 속으로 추방당한 것처럼, 자살처럼, 우리를 깊게 비탄에 젖게 하는 그러한 책들을 필요로 한다. 책이란 우리 내부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기 위한 도끼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카프카가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I. '인문학의 위기'와 소통의 문제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유령이 대학가를 배회하고 있다. 이 유령은 한국 인문학이 즐겨 내세우는 배타적 학제의 울타리를 어렵지 않게 타고 넘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자들 내면의 완고한 빗장마저 손쉽게 파고들어 가서 골머리를 앓게 만든다. 인문학이 학문적 전문성이나 미학적 자율성의 성채 안에서 안온한 일상을 영위하던 시절은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다. 이제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천적 지식인이든, 외부의 일들에 둔감한 은둔형의 지식인이든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인문학자들이 그 유령과의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불어 이 난감한 싸움을 앞에 두고 세상과의 소통이 한국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문학도가 문학판의 글쟁이들에게 권하는 다음과 같은 언설은 그 화두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일깨운다.

그리고 소설가들은 당장 예쁘게 홈페이지부터 만들어야겠다. 이제껏 발표한 소설들을 읽기 좋게 단락 나누기도 좀 자주 하고 글씨 크기도 큼직하게 해서 html로 띄워 놓아야 하겠다. 잘 안되면 인터넷 카페의 소설 좋아하는 사람 모임이라도 얼른 가입해야 할 것이다. 가서 주눅대며 '눈팅'만 하지말고 빨리 자기 소개글부터 써라. 그들은 너를 진심으로 반길 것이다. 단락 나누기도 자주 하고 재밌게 써야 할 것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은 <오마이뉴스>나 <네이버>, <다음>, <프레시안> 등에 소설이 링크되도록 기획해 봐야 할 것이다.¹⁾

바야흐로 인문학의 위상마저도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추세로 접어든

1) 천정환, 「2000년대의 한국 소설 독자」, 『파라21』, 2004 여름, 384쪽.

분위기다. 어쩌면 인문학은 달라진 시대적 분위기를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대중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내 꿈은, 영화만큼이나 빠르게 읽히면서 만화만큼이나 킁킁대는, 그러나 소설답게 독자를 깊은 생각에 빠뜨려놓는 글을 쓰는 것이”²⁾라거나, “저는요, 작가는 결국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요. 소설을 보고 뭘 의미할까, 뭘 상징할까 생각하는 걸 말리지는 않겠지만,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람들이 읽고 재미있어 하는 이야기를 쓴다는 거예요.”³⁾라고 말하는 젊은 작가들의 고백은 그와 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실제로 요즘의 작가들은 작품 자체의 논리보다 영상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서사전개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는 소설이나 인과론적 필연성과 무관하게 유희적 상상력에 의해 추동되는 작품을 선보인다. 또 간결한 문장을 선호하고 글 자체 내재적 필요성과 상관없이 단지 시각적 효과를 위해 자의적으로 단락 나누기를 행함으로써, 대중의 감각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려 한다. 특히 최근의 소설적 글쓰기는 가벼운 입담을 통해 독자에게 즐겁고 경쾌한 웃음을 선사하려는 노력으로 충만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저히 위축된 존재론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오늘의 문학이 대중과의 소통에 일정 부분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미덕을 발휘한다.

한편, 문학 연구의 분야에서도 좀더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려는 글쓰기가 힘차게 기지개를 켜고 있다. 고미숙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그린비, 2003), 권보드래의 『연애의 시대-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현실문화연구, 2003), 천정환의 『근대의 책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푸른사상, 2003) 등이 바로 그 새로운 연구동

2) 이만교, 「제24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 소감」, 『세계의 문학』, 2000 여름, 123쪽.

3) 김지영, 「소설이란 원래 재미를 주는 거짓말」, 『동아일보』(<http://www.donga.com>), 2006. 11. 3.

향의 결과물들이다. 이들 연구물은 문학이라는 한정된 연구영역에서 탈피해 문화 연구로 시야를 확대하면서 인문학의 위상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 세상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는 소장학자들의 참신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그것은 정전주의에서 벗어나 대중소설은 물론 신문기사와 잡지의 광고삽화까지 폭넓게 섭렵하여 한국 근대성이 형성되는 시발점의 풍경을 입체적으로 탐사한다. 그리고 이 역시 과거와 현재,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전문작가와 아마추어작가 등 갖가지 단절의 벽을 허물고, 양자 사이의 풍요로운 대화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일반대중에게 글 읽는 재미를 일깨우는 데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II. 외재적 소통의 위험성

그러나 인문학의 장에 불어오는 새로운 글쓰기의 물결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찬찬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고답적인 인문학적 글쓰기를 갱신하는 신선한 바람인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인문학을 상업주의의 마성에 들러 타락으로 치닫게 하는 트로이의 목마인가?

근대 학문과 예술은 각 영역의 구분과 경계의 설정에 기초해 있다. 이때, 각 영역의 전문성은 외부로부터 밀려드는 수다한 억압기제와 교란요인으로부터 개별 장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물론 때때로 각 장의 전문성이 현실의 침예한 요구를 회피하는 교묘한 핑계거리가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각 공론장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전문성의 방패를 허술하게 취급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아직까지도 한국 인

문학에 부족한 것은 각 장의 자율성과 그 자율성을 내부에서 지탱하는 전문성이다.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부각된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화두는 한국 인문학을 더욱 어려운 입장에 빠지게 하는 난감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대중과의 소통이 상업성과의 결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학과 문학 연구의 분야에 부는 새로운 글쓰기의 물결이 결코 긍정적인 효과만을 낳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본격문학은 명확히 정의되어 질 수 있는 개념도, 홀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대중문학과 자신을 구분 짓는 명확한 기준을 갖지 못한 채 단지 타자의 부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본격문학이 이제껏 부정의 대상으로 취급했던 대중문화라는 타자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일신해 나가려는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일견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긍정적 미덕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자기 혁신을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그것의 고유한 특성을 무화시키는 동시에 문학을 시장논리에 무차별적으로 편입시키는 부정적 기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⁴⁾ 따라서 본격문학과 대중문화의 융합작업은 문학적 아우라를 훼손하는 내부로부터의 자해행위가 아닌가를 자문하면서, 좀더 진지하고 치밀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요즘의 문

4) 문학이 시장논리에 침윤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볼을 보는 뻔하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시장논리가 어떻게 교양문화의 몰락과 미국의 저력을 훼손하는가를 우울하게 진단하고 있는 모리스 버만(Morris Berman)의 『미국 문화의 몰락—기업의 문화 지배와 교양 문화의 종말』(황금가지, 2002)은 그 현실의 구체적인 양상을 잘 보여준다. 아래의 신문기사도 대중성을 앞세운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출판 및 문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가를 잘 알려 주고 있다.

“5개 거대 복합기업이 미국 도서관매의 80%를 좌우한다. 1999년 상위 20개 출판사의 매출액이 전체 도서관시장의 93%를 차지했고, 그중 상위 10개사의 점유율이 75%나 됐다.

또 86~96년 ‘북비즈니스’ 통계에 따르면 소설 베스트셀러 100종 가운데 63종이 톰 클랜시, 존 그리샴, 스티븐 킹 등 여섯 스타의 작품에 집중됐다.”(『부산일보』, 2004. 11. 2)

학적 글쓰기는 문학을 단지 재미를 주는 오락물로 간주한 채 지나치게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이 보인다.⁵⁾

그와 같은 현상은 풍속·문화론적 문학 연구의 경향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사실이다. 이들 연구물들은 상투적인 시각과 획일적 문장으로 규율된 기존의 문학 연구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 ‘연애’나 ‘우정’ 등 대중이 흥미를 느낄만한 코드를 중심으로 텍스트들을 계열화하고 이를 간결하고 경쾌한 문장에 실어 나른다. 이는 새로운 사유의 공간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지만 특이하고 흥미로운 요소의 도출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기도 한다. 일례로 그것은 문학의 자율성에 너무 무관심하고 텍스트의 미적 자질에 지나치게 둔감한 채 좋은 작품과 함량 미달의 텍스트를 동등한 자격으로 취급함으로써 문학성의 훼손을 야기한다. 또, 맥락의 차이를 무시하고 표면적 유사성만을 근거로 이질적인 것들을 동질화하는 오류는 학문적 엄밀성을 훼손하고, 대중적 소통을 위한 가벼운 문체에 대한 집착은 때때로 선정적이고 즉물적인 서술을 낳는다.

고전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의미 있는 일보를 디딘 것으로 평가받는 고미숙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을 통해 그 문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책은 경쾌하고 신선한 시각으로 고전을 다룸으로써 읽는 재미를 선사하지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함으로 인해, 새롭고 튀는 해석에만 집착하지 말고 원전에 대한 엄밀한 독해와 시대의 문맥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주문을 요구받는다.⁶⁾ 사실 이 책에서 다루어진 내용 중 연암에 대한 전기적 사실은 김명호의 「연암 박지원

5) 먼저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일본의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은 문학이 사회의 지적 도덕적 과제의 부담을 벗어 던지면 단지 오락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문학이 윤리적 지적 과제를 짊어지기 때문에 영향력을 지니는 시대는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근대문학의 종언’을 선언한다(炳谷行人,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판 비, 2006).

6) 김 영, 「유목적 텍스트로서의 열하일기」, 『창작과 비평』, 2003 가을, 413쪽.

의 삶과 문학」(『역사비평』, 1992 봄)을, 텍스트에 대한 언급은 정민의 『비슷한 것은 가짜다』(태학사, 2003)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즉, 학문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목’과 ‘우정’과 ‘웃음’을 코드로 연암의 고전을 가볍고 경쾌하게 횡단하고 있는 이 책은, 신변잡기가 섞인 자의적 해석에 한창 유행하는 철학적 개념의 외피를 입혀 대중을 유혹하고 있다는 가혹한 비판에서마저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전문화된 장(문학, 철학, 예술 등)과 저널리즘 장에서 이중적으로 소속되어 “두 세계의 특수한 요구를 교묘히 피하면서 한쪽에서 얻은 권력을 다른 한쪽에서 사용”하는 데 능한 사람을 지칭하는 부르디외의 ‘지식인-기자’⁷⁾라는 개념을 빌려 대중과의 소통을 도모하는 새로운 글쓰기를 향해 부정적 시선을 던지는 것⁸⁾도 지나친 우려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머지 않은 장래에 학자들이 비좁은 대학의 울타리와 고루한 학술지의 무덤에서 나와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학자들이 TV의 단골패널로 등장해 공인(共人) 아닌 공인(公人)을 자처하는 연예인 못지 않게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쯤 되면, 시장원리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해왔던 학문영역은 시장원리에 오염될 대로 오염될 테고, 그에 비례해서 ‘지식인들이여! 텔레비전에서 사라져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올 것이다.⁹⁾

그러므로, 시장과 무관한 영역처럼 보이는 학술분야에서조차도 대중화의 바람이 불어와 대중의 기호와 눈높이를 고려한 저술의 출간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최근의 상황은, 오히려 세상과의 소통 못지 않게 각 공론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 긴요해지는 시

7) Pierre Bourdieu, 현택수 옮김, 『텔레비전에 대하여』, 동문선, 1998, 107~108쪽.

8) 손정수, 「트로이의 목마」, 『문학동네』, 2004 여름, 355쪽.

9) 이는 프랑스에서 실제로 벌어진 현상이다. 그와 관련해서는 레지 드브레(Régis Debray)의 『지식인의 종말』(강주현 옮김, 예문, 2001)을 참조할 것.

기라 판단된다.

Ⅲ. 글쓰기를 둘러싼 요철(凹凸)들

이제, 좀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글쓰기와 소통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글쓰기는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분리 불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는 두 영역 즉, 생활세계와 공론장 사이에 걸쳐 있다. 이때,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이 전(前)개인적인 규범이 관통하는 장소라면, 생활세계는 글쓴이의 물리적 실존이 위치해 있는 장소다. 생활세계 속에 몸담고 있는 주체의 육체적 심리적 상태는 물론 다양한 관계의 망들이 직접적으로 글쓰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그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라는 공적 활동에 무시 못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쓰는 자는 쓸 수 없어도 써야 하고, 쓸 말이 없어도 써야 하고, 쓸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해야 한다. 더구나 공적 활동으로서의 글쓰기는 먼저 각 전문적인 장이 요구하는 규범적 원칙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테면 학술논문을 쓸 경우, 글을 쓰는 사람은 주체에 앞서 글쓰기를 규율하는 원칙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글쓰기의 장을 지배하는 규범적 원칙에만 매몰될 때 참신한 글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생활세계에서 발효된 주체적 문제의식을 적절히 녹여내며, 세계와 존재에 대한 독창적 사유를 심도 깊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글쓰기의 주체는 글쓰기를 선규정하는 규범들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거리를 갖는다는 것이 현실로부터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건 글쓰기를 둘러싼 제반조건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현실을 향해 보

다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론적 물러섬이다. 그것은 자기 반성에 입각한 주체의 존재론적 개방이자, 학술과 문예의 공론장을 미리 조건짓는 구조적 틀에 대한 저항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바로 이 비판적 거리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글쓰기가 행해지는 공론장과 글쓰기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생활세계를 형성하는 기초적 지반인 역사적 현실과의 비판적 거리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해서 성립하고 이데올로기가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자명한 사실을 부정하는 순간, 인문학은 하나의 이념적 도그마로 변해 억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만다. 아울러,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압력이 문예와 학문의 공론장을 점점 강하게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시장과 비판적 거리를 갖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은 각 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시장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 든다. 다시 말해 시장은 문학 내재적 요구에 의해서보다 대중의 흥미와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둬으로써 문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게 된다. 그와 같은 문제점은 글쓰이의 내면적 진실이 시장의 자력에 포박된 ‘주례사비평’¹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 한 철학자의 지적처럼, 시장은 즉각적인 이해를 위해 지식을 상품화하고, 철학마저 광고 카피로 전략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유를 촉발하는 새로운 글쓰기의 성패는 제반현실로부터 어떻게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느냐? 그리고 비판적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글쓰기의 주체 자신의 내밀한 실존을 얼마나 밀도 있게 담아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체제 저항적이고 심지어 시장에 무연한 글쓰기마저도 역사적 현실에 함몰되는 광경에서 절절히 체감할 수 있다.

10) 그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책을 참조할 것.

김명인 외, 『주례사 비평을 넘어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2.

김정환은 일제의 탄압과 독재정권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올곧은 민족 정신을 견지한 지사적 문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카프(KAPF)의 위세가 사그라진 시기에 도리어 민중의 삶을 리얼리즘의 화폭에 담는 데에 매진하다, 일제의 폭압이 기승을 부리자 단호하게 붓을 꺾고 오랜 시간 침묵상태로 지내고, 다시 1966년 「모래톱 이야기」로 작품활동을 재개해 민족문학의 활성화에 기여한 행적은 이제 하나의 신화가 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친일문학 논란을 야기한 그의 희곡 「인가지(隣家誌)(1943)」는 올곧은 저항적 문인의 신화에 균열을 야기한다. 그에 대해 이미 진보진영의 한 논객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일제말과 정부수립 이후 그가 겪은 굴욕의 경험을 괄호침으로써 자신의 생체험의 중대 부분이 결락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 추억이요, 그래서 더욱 음습한 그늘에 두어 그대로 묵혀버릴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궁구하여 고통스럽지만 양명한 햇볕 아래 드러내 의식화해야 할 추억일 것이다.”¹¹⁾ 그러나 역사적 현실과의 충돌이 일상적 삶에 남긴 고통의 편린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그의 적잖은 글들 어디에도, 자신이 겪은 굴욕에 대한 실존적 고백이 담겨 있지 않다. 이는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상실한 채 오직 현실변혁에만 몰두하다 내면적 실존의 문제를 방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왜 묵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침묵의 공간을 사유하는 자기 인식의 치열성에 기초하지 않은 채, 바깥으로만 향하는 문학이 흔히 빠지는 실존적 감각의 결여”¹²⁾. 이처럼 역사적 현실에 자기의 전부를 던져 넣는 과정에서 내면적 실존이 무화되어 버린 글쓰기는 김정환 문학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민족문학이 지닌 한계이기도 하다.

11) 최원식, 「90년대에 다시 읽는 요산(樂山)」, 『문학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2001, 245쪽.

12) 위의 글, 246쪽.

IV. 내재적 소통을 도모하는 글쓰기

인간은 주관적 자아의 내밀한 실존을 통해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¹³⁾ 글쓰기는 그와 같은 인간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글쓰기는 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쓰는 자의 내면적 실존에서 출발해야 한다. 쓰는 자는 우선 글쓰기를 둘러싼 다양한 기제들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그에 함몰되지 않고 내면의 소통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글쓰기의 몇 가지 범례를 들 수 있다.

먼저, 대중서사와 교환될 수 없는 묘사와 에세이적 서술을 통해 대중문화 장르가 흉내낼 수 없는 본격문학 고유의 특성을 살려 나가려는 글쓰기가 있다. 시대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야만 했던 자가 광기의 시대를 기억하며 쓴 성찰과 참회의 기록도 있다.¹⁴⁾ 또, 복잡하고 난해한 문장들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손쉬운 이해를 거부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사유에 닿기를 요구하는 어떤 학자의 고집스런 글쓰기¹⁵⁾처럼,

13) “美的 藝術의 最高度の 完全성이 목표인 한, 一切의 美的 藝術에 대한 豫備學은 準則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人文의 學藝 humaniora라고 불리어지는 素養에 의하여 心意力들을 陶冶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推測컨대 그 이유는 人間性이란 한편으로는 普遍的인 關與의 感情[同感]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가장 誠實하게 그리고 普遍的으로 傳達할 수 있는 能力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特性들이 함께 뭉쳐서 人間性에 알맞은 社交性을 이루며, 이 社交性으로 말미암아서 人間性은 動物의 偏狹性和 구별되는 것이다.”(Immanuel Kant, 이석운 역, 『판단력 비판』, 박영사, 1998, 246쪽)

14) 문부식,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광기의 시대를 생각함』, 삼인, 2002.

15) “그렇지만 변증법 체계의 책들은 그 문체가 불명료하고 부담스러워 쉽게 소화해내기 힘들며 추상적이라는—한마디 간편한 구호로 요약하자면, ‘독일어투’라는—널리 퍼져 있는 생각 이야말로 변증법에 대한 영미 전통의 적의를 가장 분명히 드러내준다. 물론 이 책들의 문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명석하고 유려한 저널리즘 문장의 규범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현재 우리의 여건에서 명석함과 간소함이라는 그 이상들이 원래 데카르트가 염두에 두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에 봉사하게 되어버렸다면 어찌할 것인가? 인쇄물이 과잉생산되고 속도법이 만연되어가는 이 시대에 있어, 그런 이상들은 독자로 하여금 문장을 재빨리 읽어나가면서 스쳐지나가는 기성품 사상

대중과의 소통이 중시되는 현실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인문학적 정신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도 존재한다. 그리고 “어디서든 강의나 강연을 한 적도, 어떤 공식적 자리에 나타난 적도, 그 누구와 논쟁을 한 적도 없고, 인터뷰도 없으며, 하다 못해 사진도 없는 작가”¹⁶⁾의 글쓰기도 있다. 그는 ‘나’의 내밀한 실존을 텍스트 속에 산포(散布)하고 그것의 나눔을 통해 공동체와 소통의 문제를 진지하게 탐색해 나간다. 그렇게, 그의 글쓰기는 단일한 명제로 환원되지도 고정된 틀에 갇히지도 않으면서 내면적 실존의 미묘한 움직임을 섬세하게 드러내려 한다.

이러한 글쓰기들이 타자의 이해를 경유해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진정한 소통을 가능케 할 수 있다.¹⁷⁾ 인문학은 ‘이중의 도약’에 성공해야 진정한 소통에 도달할 수 있다. 시장에서 팔리느냐 팔리지 않느냐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도약’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인문학의 영역에서만큼은 시장에서의 성공이 곧장 그것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시장에서의 도약이 다시 독자의 영혼과 정신을 일깨우는 또 다른 ‘목숨을 건 도약’에 성공할 때야 비로소 인문학은 진정한 소통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을 아무 힘 들이지 않고 맞이하도록 만들고, 따라서 진정한 사고를 하려면 언어의 질료성 속으로 들어가서 문장 형태를 취한 시간 자체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찌 할 것인가? 이 중 가장 세련된 변증법적 지성이며 가장 세련된 문장가라고도 할 수 있는 아도르노의 언어를 살펴보면 거기서는 밀도 그 자체가 바로 비타협적인 태도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추상관념과 전후참조가 뻑뻑이 밀집해 있는 것도, 주위에서 값싼 쉬움을 내세우는 데 맞서 진정한 사고를 하려면 뱃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독자에게 알리는 경고로서 상황적으로 읽히려는 엄밀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Fredric Jameson, 여홍상 외역, 『변증법적 서사이론의 전개』, 창작과비평사, 1997, 7쪽)

- 16) 박준상, 「모리스 블랑쇼, 얼굴 없는 “사제”」, Maurice Blanchot · Jean-Luc Nancy, 박준상 옮김, 『밝힐 수 없는 공동체 · 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05, 91~92쪽.
- 17) 아무리 적극적으로 의미의 생성에 관여하더라도 존재의 이해와 맞닿지 않는 한, 그건 추상적 읽기와 관념적 해석의 회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읽기와 해석은 의미론적 차원을 넘어서 존재론적 차원으로의 도약이 되어야 한다.(Paul Ricoeur, 양명수 옮김, 『해석의 갈등』 (아카넷, 2001, 5~29면 참조) 하나의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현장을 통과하는 일이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는 존재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 하게 되는 것이다.